

# 4년만의 리턴매치... 여성·민노당 가세

## ■구청장 입지자

전주언 현 구청장, 김종식 전 구청장, 김선욱 전 광주시의원 등 민주당 후보 3인의 경쟁이 치열하다.

우선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있는 전청장은 9급부터 2급 공무원을 지내는 동안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주민편의 행정 서비스를 펼쳐 원만하고 친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.

전 청장은 선거보다 민선 4기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,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전 청장은 민선 4기 서구 수장으로,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감동행정을 도입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. 직장인들을 위해 전국에서까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.

‘맑고 푸른 서구 건설’을 기치로 풍양·운천·전평 3대 호수와 금당산·백마산 등 9대 산, 광주전·극락강 2대 하천을 잇는 그린생태벨트 조성도 전 청장의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.

또한, 48년 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광주시로부터 예산 100여 원을 끌어오기도 했다. 신청사는 내년 말 완공되며 구 청사는 전국 최초로 행정박물관으로 변화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.

전 청장은 “녹색성장을 통해 맑고 푸른 도시 건설을 만들어 살고 싶은 서구를 조성해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에 맞서 김 전 청장이 설득을 위해 절

## ■광주 서구청장 입지자

〈가나다 순〉



## 전·현 청장 조직력 탄탄 치열한 점전

## 국민참여당 후보 낼지 초미의 관심

치부심하고 있는 알려졌다.

아직까지 출마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, 지난 4년 동안 물밑 기반을 다지면서 보폭을 넓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 전 청장은 특히 내부부 등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서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어낼 책임자로 자평하고 있다.

이들은 청장을 거치면서 다진 조직력이 탄탄해 치열한 점전이 예상된다.

전직 광주시의원들도 공천경쟁에 뛰어 들 것으로 보인다.

서구 갑 조영택 의원의 계로 분류되는 김선욱 전 시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. 3대 서구의원, 4대 광주시의원 출신으로 주민들과 호흡을 해 온데다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. 지난 지방선

거에서 서구청장 열린우리당 후보 경선에서 김종식 전 청장에 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지만, 최근 민주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움직임 등도 김 전 시의원을 고무시키고 있다.

김 전 시의원은 “그동안 민선 서구청장은 모두 행정관료 출신들이어서 일방적인 이벤트 중심으로 행정을 진행해왔다”고 지적하고 “이제는 이벤트 행에서 탈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김 전 시의원은 교육·여성·복지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. 중앙 복지 예산을 전달하는 체계에서 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.

한나라당에서는 정용환 서구 갑 당협위원장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.

정 위원장은 현 정부와의 통로 역할을

자임하고, 중앙 예산을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자신하고 있다.

정 위원장은 “고립된 광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고 고장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”면서 “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은 만큼 균형발전에 앞장설 것”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

정 위원장은 정계 입문 경력은 비교적 짧지만 여당 소속으로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.

민노당은 강기수 광주시장 위원장을 내세워 지난 4·29 재선거에서 일으킨 민노당 돌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. 강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11%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구청장 재도전에 나선다.

강 위원장은 “서구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돼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채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”면서 “주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여론이 팽배하다”고 주장했다.

강 위원장은 “광주는 그동안 총장로 단핵도시에서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서구는 다른지역과 달리 유턴현상을 보이고 있다”며 “농성동과 양동, 광천동 등 구 도심권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”고 말했다.

강 위원장은 “모든 사업 계획·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”며 “공무원 전결규정을 지키면서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이밖에 최근 창당할 국민참여당도 서구청장 후보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# “지역민에 봉사” 너도나도 출사표 ‘후보 8명’ 4선거구 치열한 경쟁

## ■시의원 입지자

4개 선거구에서 4명의 광역의원을 뽑는 광주 서구지역은 아직 물밑 탐색전 수준이다. 현역 시의원에 맞서 전 시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, 민주당 광주시장 간부 등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자웅을 겨룰 것으로 보인다.

1선거구(양동, 양3동, 농성 1·2동, 화정 1·2동)에서는 송재선 현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맞서 영동의 조영택 국회의원 특별보좌역이 출사표를 던졌다. 영 보좌역은 노인과 청소년 등 시민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 있다. 서구의회의원 시절 의정활동비 전액을 시설에 기부하는 등 서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. 여기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조선대 환경공학부에서 공학박사를 취득.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의정활동에 쏟을 계획이다. 송 시의원과 영 보좌역 이외에 2·4대 선거구원을 지낸 이춘문 민주당 광주시장 정책실장과 박찬국 한중문화협회 광주시지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.

2선거구(광천·유덕·치평·상무1동)에서는 김동식 현 광주시의원에 맞서 김보현 전 조영택 의원 보좌관이 출사표를 던졌다. 김 전 보좌관은 경실련과 YMCA에서 10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 7년 동안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이 있다. 김 전 보좌관은 “그동안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지원하는 입장이었지만, 이제는 직접 나서 실현해보고 싶다”면서 “중소상인 위층으로 도심 상권이 예전같지 않아 도시 재생에 지혜를 모으겠다”고 말했다.

3선거구(화정3·4동, 풍암동)는 김성숙 현 광주시의원에 맞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 중이다. 박근우 전 시의원도 가세해 여성

## ■서구 광역의원 입지자

| 선거구     | 이름          | 경력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       | 송재선(52)     | 시의원(산업건설위원회)        |
|         | 이춘문(49)     | 민주당 광주시장 정책실장       |
|         | 영동익(54)     | 조영택 국회의원 특별보좌역      |
| 2       | 박찬국(61)     | 한중문화협회 광주시지회 부회장    |
|         | 김동식(72)     |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        |
| 3       | 김보현(44)     | 조영택 국회의원 보좌관        |
|         | 김성숙(55)     | 시의원                 |
| 4       | 김영철(42)     | 민주당 서구를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 |
|         | 박근우(54)     | 서구 건강기정지원센터장        |
| 5       | 박영수(60)     | (주)송월타일 대표          |
|         | 이여성(52)     | 생활체육 광주시 탁구연합회 회장   |
|         | 강기수(56)     | 서구의회 4·5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|
|         | 김성현(50)     | (주)에인건설 대표이사        |
|         | 서재의(57)     | 한국스카우트 연맹장          |
|         | 임인철(53)     | 광주·전남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   |
|         | 정우현(52)     | 민주당 광주시장 부위원장       |
|         | 주경남(46)     | 광주 YWCA 홍보총괄위원      |
| 황현택(49) | 광주 생활체육회 이사 |                     |

후보 간 경합도 관심거리다. 김 시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도시철도를 광역순환형으로 전환해 5개 자치구를 1호선과 연계하는데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평가를 받고 있다. 박 전 시의원은 현재 광주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보폭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. 박영수 전 시의원도 출마를 기정 사실화했으며 김영철 민주당 서구를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광역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.

4선거구(상무2동·서창동·금호1·2동)는 경쟁률이 치열하다. 김일출 현 시의원 등 8명이 광역의원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민노당에서는 강은미 구의원이 4선거구에서 광역의원에 도전한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## ■쟁점 & 변수

현 전주언 청장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종식 전 청장과의 ‘리턴매치’가 여전히 관심이다. 전주언 현 청장은 재선을, 김종식 전 청장은 설욕을 바르고 있다.

김 전 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열린 우리-민주당의 분열이 가져온 ‘바람’ 탓에 패배했지만, 이번만큼은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하지만, 전 청장이 재임기간 뒤아놓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‘재선 도전’에 나서고 있어 김 전 청장의 설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.

또 한가지 변수는 여성 후보로 나선 김선욱 전 시의원의 행보다.

# ①전·현 청장 재대결 눈길 ②여성후보 다크호스 될까

여성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시의원도 ‘다크호스’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.

특히 김 전 시의원이 정계특위와 중앙당에 여성지역구 할당 몫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, 당 지도부 등도 여성에 대한 공천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지켜볼 대목이다.

하지만, 민주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호남 개혁공천 대상으로 광주 서구가 오르내리고 있어 ‘제3 인물의 전략공천’ 여부도 주목된다.

민주당이 야당 등 대야권 통합을 통해 지방선거 연합 공천에 나설 경우 민주당 기득권 지역인 광주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을 다른 야당에 양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

오는 6월 광주 서구청장 선거는 현 전주언 청장과 김종식 전 청장의 ‘리턴매치’가 관심인데다 김성숙 전 시의원과 민노당 바람이 주목되고 있다. <서구 풍암저수지 전경>

“저희 [민변지니에바(주)]는 사소한 불편한 점 없습니다.”

**침하된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발!!**

파괴된 콘크리트 공법은 국내에서 개발된 저원소 복역산업 전문장 공법

- 1. 기존 구조물 진단**
  - 기존 구조물 진단
  - 연약지반 진단
  - 연약지반 보강
- 2. 구조물 복원**
  - 기존 구조물 복원
  - 연약지반 보강
  - 연약지반 보강
- 3. 구조물 보강**
  - 기존 구조물 보강
  - 연약지반 보강
  - 연약지반 보강

대리점 및 지사 모집

7. 082-515-3001-3

166 011-604-0287

시원 · 동부 · 북 호천기(가정) 센터

모집 · 건설 관련 유망업체(여 7명)

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

**노비타 비데 세일!!**

합동이 호도선물 인기행!!

**전국 최저가 판매**

성격이 다른 비데 권보가들이 원하는 설속 있는 호도 선물,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BD-KA150

399,000원

**219,000원**

(부가세 포함)

비데프라자

비데프라자(주) | 082-515-1144